

닭고기 자조금 관리위원회

www.ichicken.or.kr

H O T
ISSUE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보상기준 현실성 떨어져

AI발생 후 농가피해 심각, 합리적인 제도개선 시급

매몰처분수 역대 최고인 1,090만 수 넘어

고병원성 AI가 발생된 지 벌써 두 달이 지나고 있지만 아직도 닭과 오리에서 발생 신고가 접수되는 등 AI 종식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3월 20일 현재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으로 AI가 확산되면서 34건의 신고 중 28건이 양성으로 확인된 상태이다. 살처분 수도 지난 1,020만 수를 매몰했던 2008년을 넘어 이미 439개 농가에서 1,090만 수의 대기록(?)을 갱신하였다. 육계분야의 경우 전체 357만수 중 육계 295만 수, 토종닭 38만 수, 삼계 24만 수로 각각 기록되고 있다.

AI가 아직 끝나지 않은 과정에서 그 동안의 AI 대응방안에 상당한 허점이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방적 살처분을 한 경우에는 살처분 이후 보상비를 받고도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나타나면서 보상규정을 대대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동제한 농가 어려움 커

현재 우리나라는 500m이내를 오염지역, 3km이내를 위험지역, 10km이내를 경계지역으로 설정하여 살처분 또는 이동제한을 실시하고 있다. 닭의 경우 위험지역의 경우에는 21일, 역학관계 농

가는 14일 이동제한을 실시하고 있지만 AI 발생 시 인근지역에서 2곳 이상 발생하여 이동제한 기간이 40일 가까이 이르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사료비, 연료비 등 농가에서 들어가는 사육비가 추가로 들어가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보상기준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따라서 AI발생으로 인한 이동제한이 연속 2번 이상 발생하거나 출하를 목전에 둔 농가에 대해서는 체중증가로 인한 과밀사육으로 질병발생이 늘어나 농가들의 피해가 몇 배 늘어나면서 수매 및 적절한 보상기준을 통해 문제를 즉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력추적시스템 구축 필요

정부의 방역대책이 일부 학자들, 환경단체, 지자체 등의 주장에 따라 흔들리고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진행되어 오고 있다는 여론이 높다. 정부에서는 각 이동 차량에 GPS를 장착하여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데 왕겨, 컨설팅, 가축중계업자, 백신접종업자, 인공수정사 등 축산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야까지 손길이 미치지 못하면서 많은 허점을 드러냈다. 공무원들도 발생지역에서 비발생 지역으로 아무 제한없이 이동하면서 오히려

발생을 부추기고 있다는 내용도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이에 축산업 허가제를 연계하여 사육에서 도축까지 확실한 이력추적시스템 도입이 요구되고 있다. 이는 부화장 데이터베이스(DB)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농가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생산자 단체가 참여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을 충분히 검토·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AI가 발생할 경우 도축장, 부화장 등 산업필수시설에 대해서는 수급 조절 등 방역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이동제한 등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희귀유전자원 및 종축에 대해서도 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육계 보상기준 재 검토 필요

농가에서는 살처분이나 이동제한으로 인해 손해보는 부분에 대한 보상이 적절하게 지급되어야 한다. 하지만 육계의 경우에는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 받더라도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AI가 발생하면서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면 소비가 하락하면서 닭이 적체되어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 산란계와 종계의 경우는 잔존 가치를 인정하여 미래에 대한 수익을 보

상비에 반영한 반면 육계는 이러한 기준이 전무하며, 특히 난방비 등 사육경비가 사육 20일 이전에 집중적으로 투입되고 있지만 이 또한 반영이 되지 않아 육계도 일별별로 보상기준을 차등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현시가로 보상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살처분 기준가도 실제 농가의 생산비를 기준으로 책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생계안정자금 지급도 닭의 경우 4만수 이하만 적용되면서 형평성을 잃은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에서는 영세농을 돕기 위해 책정했다고 하지만 전업 규모가 5~6만 수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큰 의미가 없다. 정부에서 금년 처음 도입한 삼진아웃제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AI의 정확한 발생원인이 규명되지 않는 상황에서 AI의 발생책임을 농가들에게 전가하거나 보상금을 감액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이는 오히려 농가들의 신고의식을 감소시켜 AI확산을 더욱 조장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살처분 감액기준과 삼진아웃제를 없애고 농가의 신속한 신고를 유도하는 방안이 재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사)대한양계협회 정책기획부장 김동진

닭고기 자조금 거출기준 및 납부절차

농가출하

육계, 삼계, 토종닭, 육용종계
도계장으로 출하

거출금 징수 위탁

수납기관 :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작업장 (수납기관은 농가의 자조금
납부 의사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없다.
법 제 19조제2항)

거출금 징수

수납기관 :
(도계되는 전수에 대하여
도계장에 의무 징수)

농가직접납부

도계수를 기준으로 농가가
직접 자조금 납부, 자조금
송금 후 관리위원회로
연락 필수

거출금 송금

수납기관 또는 농가가
직접 관리위원회에 납부
(수납 익월 20일 까지)

고지서 발송

관리위원회에서 수납기관
(도계장)

[거출시작일] 2009년 6월 1일 도계물량부터

[수납기관] 전국 도계장 대표자

[거출금액] 육계 5원, 삼계 3원, 토종닭 10원, 육용종계 30원(수당)

[농가직접납부 계좌번호] 농협 301-0017-6070-01 (예금주 : 닭고기 자조금관리위원회)

닭고기 자조금 관리위원회는 2009년 6월 1일부터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양계농가 사육하고 있는 농가라면 모두 참여해야 합니다. 닭고기 자조금은 양계산업 발전을 위해 쓰여져 농가들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닭고기 자조금 납부 현황은 소식지와 닭고기 자조금 홈페이지 (www.ichicken.or.kr) 자조금 납부현황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대한양계협회
오 세 을 회장

생년월일 1947년 7월 6일 (만 67세)
경력 남양주시 육계협회 설립 초대총무
대한양계협회 이사
2012년 산란계자조금관리위원회 감사
포천시 양계지부(지부장)
경기 산란지부 연합회장

AI 여파로 인해 서면결의로 진행된 (사)대한양계협회 제20대 회장에는 오세를 후보가 당선되었다.

오세를 회장은 45년간 양계업을 해오면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아왔다.

오세를 회장이 가장 중요시 하는 현안은 양계데이터베이스 구축과 AI 방역지도 완성이다. 무엇보다 수급조절을 위해 필수적인 양계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양계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AI를 5차례 겪으면서도 제대로 된 방역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점이 아쉽다며 AI 방역지도 완성에도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세를 회장은 지금 당장 AI 발생으로 인한 피해 농가들의 보상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당선된 뒤 잡시도 쉴 틈 없이 AI의 파고를 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회장이라는 자리가 일종의 십자가를 떠안은 것이라고 생각해 항상 봉사하는 자세로 양계농가의 소득 안정과 업계 발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지난 3월 20일 우편으로 발송된 투표용지함을 개봉하는 선거관리위원 및 양계협회 관계자들



인터뷰

소통과 협의를 이끌어 내는 양계협회를 만들어 갈 것

양계데이터베이스 및 AI 방역지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양계협회 회장 자리는 농가의 대변인으로 봉사하는 자리

■ 현재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신지요?

무엇보다도 수급조절을 위한 양계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양계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육계, 종계, 산란계의 로드맵을 그려나가고 적정 생산이 가능한 체계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는 곧 양계산물 수급을 적절하게 조절하여 원활히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알맞은 시세를 받는 양계농가들도 만족하고 우수한 양계산물을 받는 소비자도 만족하는 1석2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효과적인 AI 차단방역을 위한 AI방역지도 및 체계를 점검해 나갈 것입니다. 그 동안 국내에는 AI가 5차례나 발생했지만 이에 대한 방역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AI 예방뿐만 아니라 AI 조기종식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올해 AI 피해로 인한 국가적인 손실이 4천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저는 앞으로 양계농가와 오리농가가 서로 협조해서 방역지도 구축은 물론 체계를 재정비하여 국가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농가들의 AI 피해액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나갈 것입니다.

육계농가에서 AI로 인해 출하지연 및 과체중 등으로 피해를 보고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농가들이 늘어나고 살처분을 하고도 오히려 농가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앞으로 없도록 꼼꼼히 챙겨가겠습니다.

■ 그 외에 어떤 사업들에 주안점을 두고 계신지요?

협회 내 각 분과위원회가 서로 소통하며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나갈 것입니다. 협회는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회원들이 모인 곳이고, 서로 다른 의견을 교환하며 미처 알지 못했던 대안이 도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육계·종계·채란분과위원회가 각 분과위원회 특성에 맞는 업무를 추진하면서 서로 소통하며 함께 발전하는 협회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또한 양계산업발전을 위해 관련전문가들의 의견을 규합할 수 있는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실질적으로 양계농가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갈 것입니다.

현재 해남에 추진 중인 닭경제검정능력연구소 건립 문제도 조속히 해결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공청회 등 충분한 소통을 거쳐 결정할 것이며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을 적절히 배치하여 농가분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할 것입니다.

그 외에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협회 임직원들이 신바람 나게 일하며 협회 발전을 위해 힘을 쏟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 회장님은 당선되기 전부터 소통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소통을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협회란 말 그대로 소통하는 조직을 말합니다. 회장 단독으로 협회를 운영할 수도 없으므로 협회 직원, 농가, 정부, 계열화사업자와 소통하며 협의를 이끌어내는 일에 주력할 것입니다.

그 동안 협회는 계열화사업자의 불합리한 활동에 대해 강경대응으로만 일관했던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의 관계가 극과 극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힘과 힘의 대결이 아닌, 서로 소통하며 협의를 이끌어 내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서로가 양계산업의 발전을 위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계열화사업자의 계란유통사업 진출 저지 및 재벌기업의 골목상권 침범 등 농가의 권익을 해치는 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농가의 입장을 대변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우리 산업의 이정표를 제시했던 한국가금학회와 함께 산학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산업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당선 소감 부탁드립니다.

AI 발생으로 인해 고통의 나날들을 보내고 계신 농가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45년간 양계산업에 종사하면서 얻은 경험을 살려 양계농가의 권익이 보호받고 서로 소통하는 양계산업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런 소통을 통해 상생하는 길을 모색하여 타 축종에 모범이 되는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가축을 기르는 생산자 본연의 순수한 마음으로 회원 농가분들과 관련단체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협회발전과 산업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양계산업이 안정되고 농가의 소득이 오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저를 택해 주신 대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리며, 3년간의 임기기간 동안 저를 뽑아주신 분들이 후회하시는 일이 없도록 협회 발전을 위해 저의 땀과 열정을 바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OT
ISSUE

0 0 2

경기방송, AI피해 입은 농가들 위한 대책 마련 시사토론회 개최

양계협회 이흥재 부회장 패널로 참석, 보상금지급 및 삼진아웃제 개선책 마련 촉구



지난 3월 14일 티브로드 경기방송의 시사토론 프로그램인 '말달리자'에서는 AI발생으로 인해 고통받는 양계농가를 위한 보상금과 AI대책에 대해 집중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패널로 참석한 (사)대한양계협회 이흥재 부회장은 정부에서 AI대책으로 내세운 '삼진아웃제'의 현실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만약 AI에 두 번 걸린 농가가 있다면 다음 AI

발생 시 방역을 해도 20%, 방역을 하지 않아도 20% 밖에 보상금을 받지 못하므로 농가 입장에서는 방역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삼진아웃제'에 의한 보상금

감액문제는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농가의 방역의지를 꺾어버리는 역효과가 더 크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흥재 부회장은 양계농가들이 AI 발생지역 내 10km 밖의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병아리 입식을 자제하고 있다며 농가들의 AI확산방지를 위한 노력을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에서 정한 AI 발생 경계지역인 10km에서 벗어난다는 이유로 마땅한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농가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호소했다.

이흥재 부회장은 AI 보상금 지급 시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현재 AI 보상규정에는 육계 시세로 보상기준을 발표하고 있지만, AI로 인해 육계시세가 떨어진 상황에서 시세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농가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보상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도 사료와 병아리가 계열화사업자의 소유로 설정되어 있어, 계열화사업자가 대부분의 보상금을 지급받고 농가들이 일부만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농가는 난방비, 방역비, 전기세, 인건비 등으로 지출이 많은 상황이므로 경영비도 건지지 못한다고 전했다. 만약 농가에서 AI 보상금을 받더라도 계열화사업자와의 분쟁으로 인해 계열화사업자에게 보상금을 상환해야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농가의 개인자금

을 보태야 하는 형편이라고 지적하며, 정부나 도 차원에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흥재 부회장은 "AI바이러스는 75℃에서 5분만 가열해도 사멸된다"는 AI 홍보문구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 문구로 인해 치킨의 소비량은 AI 초기에도 80%대의 소비를 유지했지만 생닭의 판매는 급감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AI에 감염된 닭은 시중에 유통 자체가 되지 않으므로 이 문구의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AI 대책에 대해서는 이흥재 부회장은 농장단위로 방역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축산물의 생산부터 유통까지의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완벽하게 갖춰 AI발생 시 경로추적을 통해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추적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농축산부, 2014년도 농가사료구매자금 지원계획 발표

융자 100%, 금리 3%, 2년 일시상환...AI 피해농가 최우선으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축산부)는 지난 3월 12일에 '2014년도 농가사료구매자금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농축산부는 올해 농가사료구매자금 지원사업의 총 사업비는 5,000억 원이며, 사료구매자금 용도는 신규로 사료를 구매하는 자금과 기존의 외상대금을 상환하는 조건이라고 밝혔다. 외상대금 상환이란 사료공장에 외상으로 구입해서 발생한 채무와 사료구매를 목적으로 지원한 대출금이 해당된다. 단 사료구매 목적으로 한정되지 않은 대출상품은 농가가 사료를 구매했다 하더라도 그 사용처가 유동적이므로 외상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농축산부는 강조했다.

농축산부는 융자 100%가 지원조건이며 금리 3%, 2년 일시상환이라고 밝혔다. 대출기관은 지역농협 및 축협이며, 대출금은 지역 농·축협에서 직접 사료업체에 입금된다고 강조했다.

지원대상은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이다. 기존 사료구매 정책자금 대출자도 추가 지원이 가능하며, 축산업에 등록하지 않은 농가는 축산업등록 후 추가 신청 및 추천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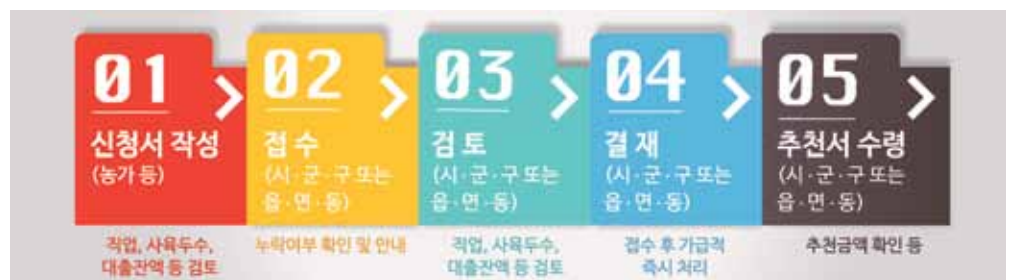
단, 농협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무원 등 정부(지방)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나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 농가는 지원에서 제외된다고 농축산부는 밝혔다.

일반농가는 지원단가가 사육마리당 1

만2천원, 농가당 지원한도는 최대 6억 원내에서 지원되며, AI피해를 입은 농가는 지원단가가 사육마리당 1만8천원, 농가당 지원한도도 최대 9억원으로 적용된다.

농축산부는 이번 사료구매자금 지원에는 특별히 지원대상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했다. 농축산부는 올해에는 조류인플루엔자으로 인한 피해농가가 다수 발생하여 가급적 피해농가와 영세농이 우

자금 신청 및 추천 절차



〈문의전화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044-201-2343〉

롯데슈퍼마켓, 양계농가 돕기 위한 닭고기 할인행사 진행

양계협회와 함께 5월 중 대대적인 소비촉진행사 실시할 예정

롯데슈퍼마켓은 AI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계농가들을 돕기 위한 닭고기 할인행사를 진행했다.

롯데슈퍼마켓은 지난 3월 12일부터 18일까지 30개 매장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닭볶음탕을 정가 5,990원에서 33% 할인된 3,990원에 판매했다고 밝혔다. 롯데슈퍼마켓 관계자는 "이번 소비촉진행사를 계기로 국민들에게 닭고기의 안전성이 알려지고 닭고기에 대한 소비가 촉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롯데슈퍼마켓은 오는 5월 중으로 (사)대한양계협회와 함께 닭고기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 및 소비활성화를 위한 닭고기 소비촉진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피해 농가를 돕기 위해 할인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롯데슈퍼마켓 여의도점

HOT
ISSUE

0 0 3

‘한·중 FTA중단! 한·호주·캐나다FTA 철회! 전국농축산인결의대회’ 개최

한·중 FTA 비대위, 한·중FTA 체결 시 농업 분야에서 29조 원 피해 예상돼



한·중FTA 협상 반대를 외치며 거리를 행진하고 농민단체 관계자들

지난 3월 17일 한·중 FTA중단농축산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한·중 FTA 중단! 한·호주·캐나다 FTA철회! 전국농축산인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회장소는 일산 문화공원에서 협상장소인 킨텍스 인근까지 2km를 행진하며 진행했으며, 비대위 대표단은 킨텍스를 방문해 한국 협상단 측에 농가의 입장

이날 집회에는 (사)대한양계협회, (사)한국계육협회, (사)한국도종닭협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전국한우협회, (사)대한한돈협회 등 30여 개 농민단체 대표자 및 실무자들이 참여했다. 집

을 담은 서한문을 전달했다.

비대위는 결의문을 통해 “한·중 FTA가 타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대다수의 농산물로 인해 정작 풍년을 맞은 농민들이 절벽으로 내몰리는 현실”이라고 밝히며 “이번 대회를 통해 농업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한·중 FTA 협상은 당장 중단되어야 함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또한 비대위는 “한·중 FTA가 체결되면 15년 간 농업 분야에서 한·미 FTA의 2~5배인 29조 원 정도의 피해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며 축산농가 및 국민의 먹거리 보호를 위해 한·중 FTA 협상을 중단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축산대표로 발언에 나선 이병모 한돈

협회장은 “축산농민에게 죄가 있다면 전 국민 5천만인을 먹여 살린 죄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정보통신과 자동차산업을 살리기 위해 농민을 희생시키는 것은 국민의 먹거리를 담보로 잡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과 중국의 한·중 FTA 협상단은 지난 3월 17일부터 제10차 협상을 시작했으며, 양측 협상단은 본격적인 양허(시장개방) 협상을 진행했다.

이번 협상에서 한국 협상단은 석유화학, 기계, 정보통신, 가전 등 수출공략 품목에 대한 중국의 조기관세 철폐를 요구하고 있으며, 중국 협상단 측은 농수산물의 시장개방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춘천닭갈비협회, 강원도와 춘천닭갈비 소비촉진행사 진행



춘천닭갈비 할인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춘천닭갈비협회 관계자 및 최문순 강원도지사

2인분 1만 8천원에 판매...115개 춘천닭갈비 업소 10%할인쿠폰 증정

춘천닭갈비협회(회장 최시영)는 고병원성 AI로 인해 위축된 국내 닭고기소비

들과 함께 춘천닭갈비 시식행사를 진행하였다. 춘천닭갈비협회는 이번 시식행사를 시작으로 3월 17일부터 4월 말까

활성화를 위해 강원도청과 함께 소비촉진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3월 17일 춘천 명동에서 춘천닭갈비협회는 최문순 강원도지사 및 강원도청 직원

지 춘천닭갈비 소비촉진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AI가 발생하고 노로바이러스에 대한 잘못된 언론보도가 나가면 춘천닭갈비 업소들의 매출이 급감하였다. 이에 춘천닭갈비협회와 강원도청은 춘천닭갈비를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며 자구책 마련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기존 춘천닭갈비를 택배로 발송 시 1인분을 1만 2천~1만 3천원 가량으로 판매하였으나, 이번 행사를 통해 춘천닭갈비협회는 택배 발송 시 2인분을 1만 8천원에 할인 판매한다. 닭고기, 채소, 떡, 사리, 물티슈 한 세트도 함께 구성되어 있

어 집에서 춘천닭갈비의 맛과 분위기를 그대로 느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춘천시내 115개 닭갈비 업소와 업무제휴를 실시하여 이들 업소에 대한 10% 할인쿠폰도 제공한다. 이밖에도 춘천닭갈비협회는 제이드가든, 물레길, 애니메이션박물관, 로봇체험관, 송암 레포츠타운의 20~30% 할인권 등 다양한 할인상품도 제공해 봄나들이철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여가고 있다고 전했다.

춘천닭갈비협회 우중동 사무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소비자가 춘천닭갈비의 식품안전성을 이해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라며, 앞으로 춘천닭갈비 명품화를 위한 체계화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처 : 033-260-4700(강원도청 콜센터)〉

검역본부, 김천혁신도시 신청사 착공식 개최



농림축산검역본부 신청사(김천) 착공식에 참여한 검역본부 관계자들

박용호 본부장, 검역 및 안전관리, R&D 등 본연업무 충실 다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용호, 이

검역본부는 이번 행사에 검역본부 직원과 시공업체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행사는 AI 발생에 따라 자체 기념식 형태로 간소하

게 개최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검역본부는 이번에 신축되는 검역본부 신청사가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본관동 기준)로 지열 등을 이용한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로 2015년 10월에 완공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산 2,209억원이 투입되는 신청사 공사가 지난해 12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22개월간 진행됨에 따라, 검역본부는 신청사 준공식이 2015년 10월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검역본부는 공사 완료 후 정규직과 비정규직 포함 총 605명이 신청사로 이전하며,

사무실과 실험실, 특수실험장비 및 전산장비, 실험동물 및 표준물질 등 59억원의 청사이전비용이 들 전망이다.

박용호 검역본부장은 기념사를 통해 “김천 신청사 착공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국민이 행복한 청정 대한민국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비전을 재차 확인하고, “신청사 이전 후 본격적인 업무가 개시되는 2016년부터 가축방역, 동·축산물 및 식물 검역, 동물용의약품 등 품질·안전 관리, 동물보호·복지, 동식품 위생 R&D 등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김천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검역본부의 미래를 김천시와 함께 펼쳐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가축분뇨법 국회 통과에 따른 축산농가의 어려움 가중 예상돼

무허가·미신고 축사, 법 시행 후 3~4년 안에 합법시설 갖춰야

2월 28일 가축분뇨법 통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월 28일 열린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가축분뇨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 통과됐다.

가축분뇨법 제1조에는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자원화하거나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며, 축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축산농가의 오랜 줄다리기에 끝에 국회에서 통과한 이번 가축분뇨법에는 축산농가에 대한 규제조항이 많다. 따라서 이번 가축분뇨법 개정안이 진정한 축산업 발전을 위한 조치인지에 대해서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

무허가·미신고 축사에 대한 강력한 조치

가장 눈에 띄는 조치는 무허가·미신고 축사에 대해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이다.

환경부는 전국에 현재 전국 9만여 개의 축사 가운데 허가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 축사는 50% 정도로 파악되었다고 밝혔다. 그 동안 불법축사가 적발되어도 소액의 벌금이나 폐쇄명령으로 그쳐 무허가·미신고 축사가 난립했다고 지적하며 이번에 불법축사에 대한 사용중지명령이나 폐쇄명령을 신설했다고 전했다. 또한 가축사육제한구역(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주거밀집지역, 수변구역 등)에 위치한 축사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조례에 근거해 폐쇄명령을 취할 수 있어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기존보다 강력한 조치인 만큼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해 유예기간을 뒀다고 밝혔다. 가축분뇨법 시행 후 소규모 축사 및 한센인촌은 4년, 일반 축사는 3년의 유예기간을 둔 것이다. 가축분뇨법이 공포 1년 후인 2015년 3월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규모축사는 2019년, 일반농가는 2018년부터는 무허가·미신고 농가에 대한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이 떨어지게 된다. 특히 환경부는 축사가 바로 사용중지 명령을 이행하기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사용중지명령을 갈음하는 최대 1억원에 해당하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한다고 전했다.

과연 불법축사로 규정된 50%의 축산농가들이 3~4년 안에 축사합법화를 위한 충분한 시설을 갖추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애그리비즈니스 경영연구소의 ‘육계 사육경비 조사 및 경영성과 분석’ 보고서에서 양

계농가의 연평균 소득이 2,544만원으로 추정된 현실을 감안할 때, 1억원의 과징금을 부담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앞으로 환경부는 이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신설

환경부는 가축분뇨의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전했다. 이는 가축분뇨의 배출·수집·운반·처리 전 과정을 보다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게 하고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화시설에 대한 정부지원과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하지만 고령인구가 많은 축산농가의 현실을 감안해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육계질병가이드 / 소독의 효과

질병이 발생할 때마다 항상 교과서적으로 나오는 말이 소독, 차단방역입니다. 점점 많은 농가들이 예전보다 더 많은 신경을 쓰시지만, 때로는 질병의 발생이 끊어지지 않아서 헛고생한 것 같으며 고민을 털어놓으실 때도 있습니다. 소독의 경우, 백신이나 항생제 같이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기에 농가분들께서 이런 고민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소독의 효과에 대해 소개해보겠습니다.

Q. 생석회를 가루상태로 뿌려도 소독효과가 있는지?

A. 많은 농장이 생석회를 가루상태로 진입로에 뿌려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석회는 물에 녹아 높은 열을 낸 후 강한 알칼리로 변하여서 소독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습기 없는 길바닥에서는 그 효과를 내기 어려운데다, 다른 소독제의 효과를 상쇄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소독제를 혼합해서 사용하면 더 강한 효과를 보일 수 있지 않는지?

A. 소독제에 따라 더 좋은 효과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대개의 경우 소독제 안의 성분들이 서로 반응하여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실제로 실험해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효과적인 축사소독의 방법이 있다면?

A. 세부적인 사항은 많지만, 중요 사항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물 세척을 실시할 경우에는 유기물을 먼저 제거해야 소독제가 병원체에 직접 닿을 수 있습니다. ② 완전 건조 후에 물이 남아있다면 소독제의 효과가 급감됩니다. ③ 소독 실시할 때에는 평당 1L 정도

도로 흙뻑 적시고, 위에서 아래로 해야 합니다.

농장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해결책은 필드 수의사와 상의하시고, 궁금한 사항은 powerseeker@hanmail.net로 문의해 주세요.

(제공 : 고려비엔피 정윤석)

한강씨엠(주), 1+1+1 세트 메뉴로 차별화된 맛과 서비스 선보여



한강씨엠(주)는 치킨전문 프랜차이즈 디디치킨을 운영하고 있다.

디디치킨은 Delicious Delight, 즉 맛있는 즐거움이라는 의미로 소비자에게 최고의 즐거움과 맛을 전해 주기 위해 한강씨엠(주)이 운영하는 치킨전문 프랜차이즈이다.

특히 디디치킨의 전 메뉴는 ‘국내산 닭고기 품질보증’ 마크를 획득한 제품만을 사용하고 있다. ‘국내산 닭고기 품질보증’ 마크는 (사)한국계육협회가 신선하고 위생적인 국내산 닭고기만을 취급하는 것이 보증된 회원사에만 부착하는 마크이다. 또한 디디치킨은 중간 유통과정 없이 HACCP 적용 도계장에서 직접 운영하고 개별 포장한 닭고기 제품을 매장에 공급함으로써, 일관된 신선도를 자랑하며 맛과 품질

면에서도 차별화되어 있다.

디디치킨의 메뉴는 ‘1+1+1’ 세트가 특징이다. 디디치킨 관계자는 ‘1+1+1 세트’ 메뉴는 닭고기제품과 단무지, 소스, 콜라를 한꺼번에 담을 수 있는 깔끔한 포장으로 배달제품의 강점을 살린 점에서 배달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1+1+1 세트’ 메뉴는 ‘골드후라이드+골드양념+골드간장(홈세트1)’, ‘골드후라이드+닭강정+골드간장(홈세트2)’, ‘골드후라이드+골드파닭+골드양념(홈세트3)’, ‘골드후라이드+골드파닭+닭강정(홈세트4)’ 등 주문 한 번으로 3가지 닭고기 맛을 즐길 수 있는 ‘1+1+1 홈세트’가 있다. 또한 ‘까르보나라치킨+탕수육치킨+골드후라이드’ 등 독특한 세 가지 맛을 즐길 수 있는 ‘디디룩세트’도 있다. 이외에 아이들의 간식용으로 적합한 ‘팝콘치킨’, 숫자놀이를 즐길 수 있는 ‘123쌀치킨’, 아이들에게 친숙한 ‘용가리치킨’ 등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디디치킨은 전했다.

단체소식 양계관련단체 업무추진 활동

(사)대한양계협회



남원육계지부, 남원소방서 임직원 및 지역주민과 닭고기 시식회 진행



올바른 닭고기 정보제공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3월 13일(목) 남원육계지부에 서는 남원소방서 자율소방대원 및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닭고기 소비촉진 시식회를 진행하였다. 한병원 남원지부장은 600마리의 닭고기를 구매하여 지부 회원들과 평소 지역 주민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소방대원들, 주변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닭고기를 시식하며 정을 나누는 좋은 기회로 활용하였다.

대한양계협회 제20대 회장, 오세을 후보 당선



오세을 신임회장

앞으로 오세을 신임회장은 3월 21일부터 향후 3년간 제20대 대한양계협회 집

행부를 이끌게 되었다. 본회는 고병원성 AI로 인한 양계농가 방역문제로 정기총회를 개최하지 못하였으며, 제20대 회장선거는 우편투표를 실시하였다. 이에 3월 20일(목)까지 회신되는 회장선거 우편투표용지를 수거하여 20일(목) 오후 2시 개표하였으며, 개표결과 오세을 후보가 당선되었다. 협회장으로 당선된 오세을 후보는 당선소감에서 “앞으로 책임져야 할 양계산업의 과제를 생각하니 어깨가 무겁다”라며, “양계산업 발전을 위해 임기동안 열정적으로 회장직에 임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사)한국계육협회



박상연 신임 부회장 선임



(사) 한국계육협회(회장 정병학)는 지난 3월 19일 충남 천안 소재 한 회의실에서 2014년도 제2차 이사회를 갖고 본회 당면 현안과 제 해결에 역할을 다하기 위해 신임 부회장에 박상연 부회장을 선임했다. 박상연 부회장은 1954년 경남 밀양 출신으로 농림부 기획관리실, 감사관실, 축산국, 식량생산국 등에서 근무했으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장, 한국수산물자원관리공단 동해지사장을 역임했다.

AI 경영안정자금 지원 관련 설명회 개최

자금 실행방법 및 지원 대상자 준수사항 등에 대해 설명

(사)한국계육협회(회장 정병학)는 지난 3월 19일 충남 천안 소재 한 회의실에서 ‘AI 경영안정자금 지원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자금지원을 받는 총 24개 육계 및 토종닭 계열화업체 중 16개사가 참여했으며, 지원규모와 실행방법, 준수사항 등에 관해 본회 정병학 회장이 직접 나서 설명했다.

이번 경영안정자금의 지원규모는 총 350억 원이며, 계열사당 지원한도는 총 30억 원이다. 지원조건은 연리 1~3% 2

년 거치 3년 상환(2년 1%, 3년 3%)이다.

본 협회는 담보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사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를 거쳐 농업신용보증기금을 현행 지원한도 15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한편 닭고기 비축계획을 제출한 계열화사업자는 앞으로도 자금을 배정받는 수준 이상의 비축을 계속 실행해야 하며, 닭고기 거래가격의 안정을 위해 냉동 비축·보관된 닭고기를 6월 말 이전에 임의로 방출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수매비축 필요 시 100억 원의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사)한국토종닭협회



토종닭 홍보관 마련



2014 우리농특산물 및 소상공인 직거래장터, 2014 금산투데이 마라톤 행사 참가

금번 AI 예방을 위한 정부정책에 의해 판매가 묶여 있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토종닭 농가를 돕기 위해 본 협회는 시식 행사를 참가해 토종닭 홍보관을 마련했다.

본 협회는 지난 3월 18일부터 동월 24일까지 ‘2014 우리농특산물 및 소상공인 직거래장터’와 지난 3월 22일부터 23일까지 ‘2014 금산투데이 마라톤 행

사’에 참가해 참관객에게 홍보 시식행사를 하여 우리 종자인 토종닭의 우수성을 홍보했다.

이번 행사는 금번 AI 발생으로 소비가 둔화되어 어려운 농가들을 돕고 우수한 닭

고기 소비홍보를 위한 정부의 특별지원금으로 실시되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토종닭 ‘한닭’을 알리고 토종닭 종사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동시에 소비자와 함께하는 행사로 승화시켜 토종닭 홍보 및 소비촉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사였다. 본 협회 관계자는 “다양한 홍보 활동으로 토종닭 소비 저변을 넓혀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토종닭 민간 자율비축 추진 사업

본 협회는 지난 2월 13일부터 토종닭 민간자율비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번 사업은 AI 발생에 따른 소비 둔화

로 적체현상이 ‘심각’에까지 이르러 생산비 이하로 거래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토종닭 농가를 위해 민간 도축·가

공업체를 통한 자율비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비축된 토종닭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금이 지원되므로 농가 경영에 안정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축 대상은 토종닭 출하일령 70일령을 경과한 토종닭을 비축하는 것으로 출

하일령을 넘긴 토종닭 실용계 100만수 내외가 이에 해당된다.

본 협회 관계자는 “금번 비축사업으로 극심한 적체현상을 해소시키고 토종닭 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꾀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급조절 위해 종란 130만개 식란으로 처리

본 협회는 부화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2014년 중계현황을 논의했다.

본 협회는 닭고기자조금 사업의 일환으로, 소비둔화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이 시점에 부화장과 농가가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도록 토종닭 시장안정을 위해 종란 일주일분인 130만개를 감축하기로 결정하였다.

토종닭 병아리 분양은 (2월 기준) 주당 100~110만수가 분양되었으며 비수기인 현시점에 우려할만한 수준이다.

본 협회는 전 회원들에게 문자메시지

로 이를 공지하고 입추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금번 종란감축은 전체 중계장이 참여하며 종계수 대비 산란율을 일정하게 적용, 일괄 처리하기로 하였다.

본 협회는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농가분과(지회장)와 중계부화분과위에서 감독관을 각각 1인씩을 파견하여 공정하게 처리토록 하였으며, 처리업체와 처리된 종란은 절대 병아리를 분양하는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협약서를 체결 이를 철저히 감시하기로 하였다.

환경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AI 발생으로 야생동물 질병관리 체계화 필요성 대두돼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지난 2월 28일 체계적인 야생동물의 질병관리를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법률 개정안으로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의 지정 등 질병 관리 인프라가 구축되고, 폐사체 신고 및 포상금 제도가 신설되는 등 야생생물 질병관리의 선진화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했다.

환경부는 최근 국내 닭·오리 및 철새 등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병하면서, 야생동물 질병이 가축, 사람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야생동물 질병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정부가 5년마다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중장기 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장기 계획에 따라 환경부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제1차 계획을 수립하고 야생동물 질병의 예방 및 신고체계를 구축하며 질병 대응을 위해 국내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야생동물 질병의 진단 및 과학적 원인 규명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정부가 ‘야생동물 진단기관’을 지정·운영토록 했다.

또한 환경부는 야생동물 질병 발생의 신속한 파악을 위해 야생동물 폐사체 발견 시 이를 즉시 신고토록 했으며 신고 시에는 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야생동물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보호·관리하는 기관에서 살처분 처리를 하도록 규정하기도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야생동물 질병 업무 수행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이러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향후 유사한 질병의 재발을 방지하고 과학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시 ‘별그대’ 인기 활용한 치맥 상품 개발

중국 관광객 유치 위한 ‘대구 별별투어’ 통해 치맥 열풍 이어갈 것

‘치킨의 본고장’인 대구시는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중국 내 인기를 활용해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한 ‘별그대 마케팅’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중국에서 ‘별그대’의 인기 에 따라 ‘치맥(치킨+맥주)’ 열풍이 불고 있으며 별그대의 자취를 찾아 한국을 찾는 중국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관광공사 대경협력단과 공동으로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투어를 준비했다고 전했다.

대구시와 한국관광공사 대경협력단이 준비한 관광투어는 ‘별에서 온 그대’의 치맥 식도락 콘텐츠를 활용해 대구에 2박 3일간 머무는 ‘대구 별별투어’ 상품이다. 이 상품은 전체 일정이 4박 5일이며 경기 및 인천의 ‘별그대’ 촬영지를 이틀 동안 둘러보고, 나머지 2박 3일 대구 일정은 치맥 가게, 평화시장(닭집 골목), 대구 주요 관광명소를 둘러보는 식도락 관광 프로그램이다.

대구시는 치킨의 본고장인 만큼 중국 관광객 유치에 유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타 지역보다 유리한 점으로 교촌 치킨, 땅땅 치킨, 호식이 두 마리

치킨, 별별 치킨 등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대구에서 창업했으며, 작년 7월에는 치맥 페스티벌을 개최했다는 점을 들었다. 이를 근거로 중국 관광객들이 치킨의 고장에서 치맥을 먹거나 직접 요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지역특화형 관광상품으로 각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그 동안 기존의 한류 드라마를 테마로 한 관광상품들은 일회성 상품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구 별별투어’ 상품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투어일정 중에 관광호텔까지 치맥을 배달시켜 주는 등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제시함으로써 지역 특화형 상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 서상우 문화체육관광국장은 “한류 드라마의 인기로 인한 중국의 치맥 열풍을 대구 관광으로 연결시키고, 더 나아가 치맥 페스티벌을 통해 중국 관광객을 대구로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축산과학원, 환절기에 효과적인 온도 및 습도 관리 요령

적절한 온·습도 유지로 사료효율 및 폐사율 향상 효과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은 환절기를 맞이해 닭 사양관리 요령을 제시했다. 전국적으로 환절기에는 기온 편차로 닭들의 호흡기 질병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사 내의 온도와 환기를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축산과학원은 우리나라가 봄에는 영하 1~2℃에서부터 14℃까지 온도차가 심하며, 이 같은 바깥 온도차가 계사 내에 그대로 전달되면 닭들의 건강이 악화된다고 전했다.

따라서 어린 병아리는 자신의 체온을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온도관리를 잘 해야 한다고 축산과학원은 밝혔다. 병아리의 처음 1주 동안은 31~33℃ 정도를 유지하

다가 1주일 간격으로 약 3℃씩 온도를 내려 20℃ 전후에 온기를 닫는 것(폐온)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폐온의 적기는 3~4주령으로 주간에 폐온, 야간에는 급온을 3일 정도 반복해 외부기온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난 후 완전히 폐온해 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전했다.

축산과학원은 육추 초기에 급온으로 인해 실내 습도가 부족해지면 깃털발생 불량, 탈수증, 식욕감퇴, 성장부진 및 폐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당한 습도 관리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육추 초기 습도는 70%, 2주령 65%, 3주령 이후에는 60%가 적당하다고 전했다.

Today's
맛 있는
닭고기 요리

닭고기 라비올리

라비올리는 속을 채운 후 잡작하게 빚어내는 파스타다. 속재료는 얼마든지 응용이 가능하므로 다진 닭고기와 각종 재료를 섞어 만들면 영양간식으로 안성맞춤이다.

반죽 밀가루 100g, 소금 1/5작은 술, 올리브오일 1/2작은 술, 계란 1개
만두소 다진 닭고기 150g, 양파 100g, 올리브오일 1큰 술, 빵가루 2큰 술, 처빌, 타임, 파슬리, 배질 각 10g
마늘크림소스 닭고기육수 2와 1/2컵, 마늘 8쪽, 로즈마리 1줄기, 생크림 2와 1/2컵, 소금, 후추
기타 접착용 계란 1개, 장식용 파르마치즈 10g

Cooking

1. 라비올리 반죽은 넓은 그릇에 밀가루, 소금을 담아 가운데를 우묵하게 파고 올리브오일과 계란을 넣고 많이 치대어 반죽을 부드럽게 한 다음 두 개로 나누어 랩에 싸 두었다가 두 장으로 밀어 놓는다.
2. 양파는 곱게 다져 볶아 놓고 허브(처빌, 타임, 배질)와 파슬리도 다져 놓는다.
3. 그릇에 닭고기, 볶은 양파, 허브, 빵가루, 올리브오일, 소금, 후추를 넣고 섞어 소를 만들어 포도알 크기로 만들어 놓는다.
4. 밀어놓은 반죽 한쪽 면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만두소를 놓고 붓으로 주변에 계란물을 발라 남은 반죽 밀은 것을 덮어 4cm의 둥근 틀로 찍어 테두리를 꼭꼭 붙이고 포크로 눌러 모양을 내어 라비올리를 만든다.
5. 라비올리는 소금을 넣은 끓는 물에 2~3분간 삶아 건져 그릇에 담고 마늘크림소스를 뿌리고 파르마치즈를 뿌려낸다.

〈제공 :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 안승춘 회장〉



퀴즈 낱말맞추기

1		14		13	
2	3			12	11
	4		8		
5			9	10	
		7			
6					

◇ 가로풀이

- ② 심장의 박동으로 심장에서 나오는 피가 얇은 피부에 분포되어 있는 동맥의 벽에 닿아서 생기는 주기적인 파동
- ④ 목숨이 위험할 정도의 큰 상처
- ⑤ 적당한 때나 기회
- ⑥ 기둥 둘레의 원판 위에 설치한 목마에 사람을 태워 빙글빙글 돌리는 놀이기구
- ⑨ 관광하러 다니는 사람
- ⑫ 서로 바꿈
- ⑭ 병마개를 따는 데 쓰는 기구

◇ 세로풀이

- ① 치킨과 맥주의 줄임말, 드라마 '별그대'를 계기로 중국 내에서도 인기가 높은 식품조합
- ③ 이마로 무엇을 세게 받아 치는 행위
- ⑤ 음식의 맛이나 요리 솜씨를 보려고 시험적으로 먹어 보는 모임
- ⑦ 큰길에서 들어가 동네 안을 이리저리 통하는 좁은 길
- ⑧ 직책상 자기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 ⑩ 세상에 널리 알림. 또는 그런 일
- ⑪ 다른 노선이나 교통수단으로 갈아타는 승객
- ⑬ 학교를 새로 세워 처음으로 운영을 시작한

68호 정답

		40	능	근	장
	2		문		4
12	윤	근		12	4
4		4	음	12	
장	2			장	12
	12	4			4

양계
비법전수가축용 생균제의 구입 및
급여방법은?

생균제의 균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다만, 사료공정서에 따른 최소 균수는 106이상이어야만 한다.

동물병원 및 동물약품 대리점과 같은 곳에서 생균제를 구입 시에는 먼저 공인기관에서 품목등록이 되어있는 제품을 구입한 후 포장지에 적혀있는 유통기간을 확인하여 가급적 최근에 생산된 제품으로 유통기간이 다른 제품보다 더 오래 남아있는 제품

을 구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제품 포장지에 어떠한 미생물이 얼마만큼 함유되어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같은 가격이라도 미생물수가 많은 것을 구입하는 것이 효과적인 생균제 구입방법이라 할 수 있다.

미생물제제를 혼합할 사료를 선정할 때에는 가능한 한 항생제가 함유된 사료는 배제하고, 사료의 형태가 분말사료인 경우 사료빈에서 제품의

권장량을 사료에 균등히 혼합한다. 단, 펠렛사료의 경우는 수당 일일사료섭취량에 준하여 제품의 권장량을 골고루 먹이도록 하는 것이 좋다. 또한 제품별 정해진 용법, 권장량을 준수하여 급여하며 지정된 축종에만 사용하고 음수용 생균제를 사용할 경우 깨끗한 음용수를 이용한다.

〈출처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닭기르기 100문100답'〉

AI의심축 신고전화(1588-4060)

방문자 등 외부인

- ⇒ 농장출입구에 '방역상 출입금지' 안내문 부착
- ⇒ 발판소독조, 분무소독시설 설치, 운영
- ⇒ 외국인의 가금류농가 출입제한
- ⇒ 동물약품·사료·채혈요원 등 방문자의 사전 약속 및 청결한 의복·신발 착용
- ⇒ 계사 출입 시 깨끗한 방역복·장화를 착용하고 출입문에서 장화 침지 소독

출입차량 ⇒ 모든 차량은 농장 출입구에서 세척 및 소독 실시

농장주, 관리인 등 농장근무자

- ⇒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고, 농장 출입자를 철저하게 통제
- ⇒ 계사출입시 발판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생활화
- ⇒ 철새도래지 및 서식지, 가축시장, 부화장, 집하장, 도계장, 사료공장, 분뇨처리장 등의 방문 자제
- ⇒ AI발생국 여행 자제(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등)
- ⇒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철저한 소독 및 교육 실시
- ⇒ 살충 및 구서(쥐잡기) 실시

